



남자의 로망 '명품 바이크'가 한자리에 3월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라이드 온 라이프 온(Ride On Life On)'을 주제로 열린 2016 서울모터사이클쇼의 BMW 부스에서 모델을 이 바이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R모터스, 혼다, BMW, 할리데이비슨, 스즈키 등 국산 및 수입 브랜드의 모터사이클 80여 종의 전시된다. 뉴스시스

## 카카오게임, 퍼블리싱으로 플랫폼 역량 강화

카카오프렌즈 IP 활용 게임 확대  
새 수익모델 '카카오 AD+' 선포  
카카오게임샵 애플리케이션 출시

카카오가 모바일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는 남궁훈 게임사업총괄 부사장을 영입한 뒤 게임사업에 대대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 퍼블리싱 모델 도입과 카카오프렌즈 라이선싱 게임 확대, 광고기반 추가 수익모델 제공, 카카오 게임샵 외연 확대, 게임 전용 마케팅 채널 확대, 모바일게임 개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퍼블리싱 모델 도입

가장 큰 변화는 퍼블리싱 사업 진출이다. 게임 전문 계열사 엔진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파트너들의 다양한 모바일 게임 확보에 나섰다. 개발사를 대상으로 퍼블리싱 비용만 부과하는 모델을 적용해 초기 게임 준비부터 출시 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카카오프렌즈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NHN픽셀큐브와 함께 출시한 첫 카카오프렌즈 게임 '프렌즈 팝 for kakao'의 경우 출시 6개월에만



카카오가 퍼블리싱 사업진출, 카카오게임샵 앱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카카오게임 사업방향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 사진제공 | 카카오

에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카카오프렌즈 활용 게임을 내놓고 성공사례를 늘린다는 목표다.

기존 부분 유료화 모델과는 별도로 모바일 광고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 애드플러스(AD+)'를 선보인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형태로 제공되는 광고 플랫폼을 게임에 탑재한 파트너는 광고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광고모델을 도입하면 월간 게임 매출액 기준으로 플랫폼 수수료율을 할

인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기존 단일 수수료율 대신 월매출 3000만원 이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3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일 때는 14%, 1억원 초과 시엔 21%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 ●중소형 개발사 투자도

형態로 운영해 온 카카오게임샵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카카오게임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출시한다. 카카오 게임샵은 최대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기존 앱마켓들의 수수료율과 비교해

4분의1 수준의 결제수수료만 적용해 파트너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임샵에서 내려 받은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는 카카오코인 충전 시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등 유저를 위한 혜택도 있다. 카카오는 3월17일 카카오게임샵 앱 베타버전을 출시했다. 카카오 게임샵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이머들은 앱을 통해 게임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카카오게임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일 이용자수 1000만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카카오게임 전용 노출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누적 가입자수 7억 70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게임 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이용자 대상 맞춤형 타겟 프로모션이 가능한 게임 마케팅 툴 'GMP'를 모든 파트너사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중소형 개발사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3월7일 카카오의 스타트업 투자전문회사 케이큐브벤처스와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성장나눔게임펀드'를 결성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및 게임 유관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수 인재와 장르 전문성을 갖춘 국내 중소 게임사의 초기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전립선비대증, 면역으로 다스리자

전립선은 남성 고유의 신체기관 중 하나다. 밤을 정도 크기로 정액을 만들어나고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중년 이상이 되면 남성들에게는 급격한 신체 노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이상이 생겨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고령화 사회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때문에 점점 환자가 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배뇨장애이다.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반대로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다 차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게 되고 소변이 갑자기 잘 나오지 않게 된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소변이 고이게 되어 요독증, 신우염, 방광염, 결석생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전립선비대증은 노화로 인한 전립선 주변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성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 생기면 전립선이 염증을 많이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면역체계를 바로 잡아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면역력에 중점을 둔 치료법은 다양하게 있다. 그 중에서는 인체의 저항능력인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이 발생한다고 봐 몸 전체의 생리적인 부조화, 즉 인체 내의 음과 양의 불균형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한방치료가 있다. 한방치료는 개인마다 차이를 관찰하여 질병의 진행 과정 즉 체질 의학이라는 사상의학을 정립시켜 만들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방법에는 주요 혈자리에 약침을 놓아 혈류개선, 항염증 작용, 통증완화, 면역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침요법이 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간접적인 열전달을 통해 열대사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양모요법도 있다.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다.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수분섭취를 최소화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신장이 손상되거나 요로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류개선이 되고 몸 속 장기간 조직에 치가 모인 상태인 전립서 울혈을 방지할 수 있어 전립선비대증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이지스한의원 광주점 서진우 원장

##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4월 말로 연기

###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핵심사안인 특허 추가 여부는 4월 말로 결정을 미루었다.

제도개선안에서 우선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자 위축, 고용 불안, 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판단 아래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초과

는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현재 43억원이던 특허 수수료가 3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증가로 확보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1개 사업자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대해 신규 특허 심사 시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위남용행위를 할 경우는 5년간 신규 추가 특허 신청을 못하게 제재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대한항공 '피지 구호물품' 무상수송

대한항공이 사상 최악의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피지 이재민을 위해 구호물품 무상수송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피지 대사관측의 지원 요청에 따라 29일 오후 피지로 출발하는 KE137편 A330-200 항공기에 의료 등 구호물품 3톤을 무상 수송했다. 이에 앞서 10일 에도 생수와 건빵 등 이재민 구호물품을 긴급 수송했다. 피지는 2월20일 남반구 사상 최악의 사이클론 '윈스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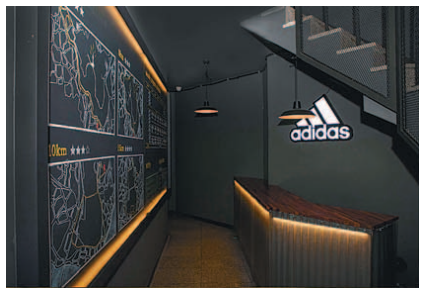
상륙해 40여명의 사망자와 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미얀마 홍수, 네팔 대지진 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품 지원과 구호물품 무상수송을 했다.

## 도심 질주하는 러너들 위한 공간

### 아디다스 런베이스 경리단길 오픈

글로벌 리딩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가 러닝을 즐기고, 러닝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런베이스 서울(사진)'을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오픈했다.

다양한 러닝 코스를 갖춘 남산과 20대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인 경리단길 사이에 위치한 런베이스 서울은 총 면적 330㎡의 3층 규모로, 집 보관을 위한 라커룸부터 스트레칭 룸, 샤워시설은 물론 무료 음료와 러닝화 렌탈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전문 선수들의 러닝 코칭, 테이핑, 코어 운동, 발레 등 러너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클래스가 상시 운영된다. 이용료 3000원 이면 원하는 운동 클래스를 비롯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디다스의 런베이스는 한국을 비롯해 베를



린, 보스턴, 도쿄, 모스크바 등 전 세계 9개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라커룸부터 스트레칭 룸, 샤워시설은 물론 무료 음료와 러닝화 렌탈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전문 선수들의 러닝 코칭, 테이핑, 코어 운동, 발레 등 러너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클래스가 상시 운영된다. 이용료 3000원 이면 원하는 운동 클래스를 비롯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디다스의 런베이스는 한국을 비롯해 베를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매트 결함' 리콜

### 파사트 1.8TSI는 '고압 펌프' 이상

FMK,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 CMC, GM코리아, BMW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FMK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2개 차종은 운전석 매트 고정기 해제돼 매트가 가속 페달 쪽으로 밀려날 경우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여 가속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15일부터 2015년 12월16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2403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1.8 TSI 승용차는 엔진 캡측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와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엔진 출력

감소,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4년 11월18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가 대상이다.

스즈키CMC의 AN650ZA 등 5개 차종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 흡배기 밸브 터렛 결합으로 주행 중엔진이 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2년 12월25일부터 2014년 1월22일까지 제작된 AN650ZA, DL650A 이륜자동차 84대다.

GM코리아의 사브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좌석안전띠 리트랙터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안전띠를 되감지 않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7년 10월24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제작된 사브 승용자동차 32대가 대상이다. 원성일 기자 seren@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메이헬 디벨롭-KBSN 업무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모바일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헬 디벨롭이 3월30일 서울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KBS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이헬 디벨롭과 KBSN은 '도내이션 코리아'를 설립하고 기획과 운영은 메이헬 디벨롭이, 홍보와 마케팅은 KBSN이 주관하기로 했다. 도내이션 코리아는 친체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상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메이헬 디벨롭 김태우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KBSN 이준용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메이헬 디벨롭